

초등

수능 독해

문학 2 |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가이드북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유자소전 _ 이문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2 장마 _ 윤홍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3 자전거 도둑 _ 박완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4 가난한 사랑 노래 _ 신경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5 괜찮아 _ 장영희	<input type="radio"/>				
별별 사건					
01 소음 공해 _ 오정희	<input type="radio"/>				
02 일용할 양식 _ 양귀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3 노새 두 마리 _ 최일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4 낙화 _ 이형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5 구두 _ 계용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별별 배경					
01 수난시대 _ 하근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2 광장 _ 최인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3 꺼삐딴 리 _ 전광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4 성북동 비둘기 _ 김광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5 추억에서 _ 박재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별별 소재					
01 흐르는 북 _ 최일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홍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3 성탄제 _ 김종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4 풀 _ 김수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05 결혼 _ 이강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사랑손님과 어머니 _ 주요섭	○	○			
02 삼대 _ 염상섭		○	○	○	○
03 쉽게 씌어진 시 _ 윤동주		○			○
04 나룻배와 행인 _ 한용운	○	○	○		
05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_ 오영진		○	○		
별별 사건					
01 미스터 방 _ 채만식	○	○		○	
02 운수 좋은 날 _ 현진건	○	○			○
03 봄·봄 _ 김유정	○	○		○	○
04 유리창 1 _ 정지용	○	○			○
05 고향 _ 백석	○	○	○		○
별별 배경					
01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	○	○		○
02 만세전 _ 염상섭	○	○		○	○
03 태평천하 _ 채만식		○	○		
04 님의 침묵 _ 한용운		○	○		○
05 청포도 _ 이육사	○	○			○
별별 소재					
01 동백꽃 _ 김유정	○	○	○		
02 돌다리 _ 이태준	○	○	○		○
03 역마 _ 김동리		○		○	○
04 진달래꽃 _ 김소월	○	○	○		○
05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_ 김영랑	○	○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유충렬전 _ 작자 미상		○	○	○	○
02 심청전 _ 작자 미상	○	○	○	○	○
03 허생전 _ 박지원	○	○			○
04 동명왕 신화 _ 작자 미상	○	○			
05 (가) 동짓달 기나긴 _ 황진이	○	○			○
(나) 뫼버들 가려 _ 홍랑	○	○	○		
별별 사건					
01 사씨남정기 _ 김만중	○	○	○	○	○
02 운영전 _ 작자 미상	○	○	○	○	○
03 흥보가 _ 작자 미상	○	○	○	○	○
04 춘향전 _ 작자 미상	○	○	○	○	○
05 가시리 _ 작자 미상	○	○	○	○	○
별별 배경					
01 박씨전 _ 작자 미상	○	○	○	○	○
02 홍길동전 _ 허균	○	○	○	○	○
03 양반전 _ 박지원	○	○	○		○
04 (가) 하여가 _ 이방원	○	○			
(나) 단심가 _ 정몽주	○	○			
05 봉산 탈춤(제6과장 양반춤) _ 작자 미상	○	○	○		○
별별 소재					
01 토끼전 _ 작자 미상	○	○	○	○	○
02 만복사저포기 _ 김시습		○	○		○
03 오우가 _ 윤선도	○	○	○		○
04 (가) 두꺼비 파리를 _ 작자 미상	○	○		○	○
(나) 개를 여남은이나 _ 작자 미상	○	○			
05 규중 칠우 쟁론기 _ 작자 미상	○	○			○



별별
큰 큰

인물

- 01 사랑손님과 어머니 _ 주요섭
- 02 삼대 _ 염상섭
- 03 쉽게 씌어진 시 _ 윤동주
- 04 나룻배와 행인 _ 한용운
- 05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_ 오영진

별별 인물 어휘로 마무리

01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메인북 8~13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말에
【# **달걀**】을 많이 사는 어머니

#2

아저씨와 【# **내외**】 하는 어머니와 달리 요새 세상에 내외하느냐는 외삼촌

#3

【# **풍금**】에 얽힌 추억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

#4

【#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관심과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사랑 2 삶은 달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이다.

사건 아저씨와 어머니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지만 직접 관심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배경 여러 채로 되어 있는 집에서 안채는 안에 있는 집을 말하며, 안채에는 '나'와 어머니가 머물고 있다. 아저씨는 위채에 있는 사랑에서 하숙을 한다.

소재 '삶은 달걀'은 아저씨와 '나'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02 ④

'나'는 여섯 살 어린아이로 어머니와 아저씨가 서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저씨에게 엄마를 보러 가자는 등의 순진한 말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3 ④

'나'는 아저씨가 자기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아저씨에게 친밀함을 느낀다. 또한 어머니는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나'의 말을 듣고 달걀을 많이 사기 시작한다.

04 ①

창가는 1900년대 초,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봉건적인 사회 질서로부터 근대적 사회로 바뀌어 가던 시기에 불린 노래를 말한다.

05 ②

어머니가 사랑에 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남녀가 유별하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사랑 아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저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06 ①

'풍금'은 옥희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선물로,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풍금의 뚜껑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풍금은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옥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07 ①

아저씨는 옥희와 친하기도 하고 옥희가 귀여워서 놀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옥희 어머니에 대한 관심 때문에 더욱 옥희를 귀여워하고 옥희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하는 것이다.

08 ③

여섯 살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의 모습을 전달하거나 추측하다 보니 어른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이는 '나'를 귀여워하던 아저씨가 외삼촌이 들어오면 점잖아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가 외삼촌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는 점 등에서 나타난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 조상】을 꾸어 왔다는 상훈이의 말에 화를 내는 조의관

#2

대동보에 들어간 【# 돈】과 가치관의 차이로 말싸움하는 상훈이와 조의관

#3

【# 덕기】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상훈이를 내쫓는 조의관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족보 2 재산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이 글은 조의관 - 조상훈 - 조덕기로 이어지는 삼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건 상훈이는 조의관에게 자신의 변명을 해 주는 창훈이를 두고 말리는 사람이 더 밋다고 하였다.

배경 이 글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 소설로, 서울 중산층 집안인 조의관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소재 조의관과 조상훈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돈을 어디에다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다.

02 ①

이 소설이 일제 강점기인 1920~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소설의 주제를 알기 위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든 소설을 읽으며 주제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03 족보

조의관과 조상훈이 갈등하는 원인은 겉으로는 조의관이 족보를 사는 데 큰돈을 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의관은 가문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고, 조상훈은 근대적·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04 ⑤

조의관은 조상을 모시는 일이나 가문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한 일에 관심을 두고 돈을 쓰고 있다. 조상훈은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온 지식인으로 교육이나 도서관 사업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05 ④

조상훈이 제사에는 참석했지만 조의관이 말하는 ‘제사 반대군’은 바로 조상훈이다. 조상훈은 제사 지내는 일과 족보 사는 일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06 ④

족보 편찬을 반대하고 가문의 일을 무시하는 상훈이에게 조의관은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들인 상훈이와 인연을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자신의 재산을 상훈이가 아닌 손자 덕기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07 ⑤

조의관이 족보를 만드는 데 많은 돈을 쓴 이유는 족보 파는 것을 반대하는 원래 족보 주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많은 돈을 쓰고도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것이 아니라며 숨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08 ④

이 글에서 1대인 조의관은 봉건적 세대, 2대인 조상훈은 개화기 세대, 3대인 조덕기는 식민지 세대로 세대 간의 화합이 아니라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매인북 14~19쪽까지 정답이야!



03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장면별 핵심 태그

#1

비가 내리는 밤 일본의
【# **육척방**】에서
시를 쓰고 있는 ‘나’

#2

학비를 받아 대학에
【#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나’의 현실에
대한 회의와 갈등

#3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 **시**】가 쉽게
쓰여 부끄러움

#4

‘나’와 ‘나’의 최초의
【# **약수**】를 통해
화해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다짐함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20~23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이 시의 화자는 시인 자신으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다.

시어 ‘육척방은 남의 나라’라는 것에서 화자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현 1연의 1행과 2행의 순서가 8연에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02 ④

화자는 누군가 ‘등불’을 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혀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화자가, 자신에 대한 반성을 거쳐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03 ⑤

화자는 집에서 보내 주는 학비로 대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04 ②

시에서는 시행의 끝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 시는 시행의 끝이 전부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 이 시는 2행으로 된 짧은 연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등불, 아침

‘밤비’와 ‘어둠’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등불’과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06 ②

㉠은 잘못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를 나타낸다. ㉡은 이러한 자신을 되돌아본 후에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이상적 자아이자 내면적 자아이다.

07 ③

‘높은 교수의 강의’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과도 관련이 없고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도 없는 낮은 지식을 의미한다.

08 ②

어린 때 동무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대학 노트’는 일본에서 대학 수업을 들었음을 의미한다. ③ ‘침전’은 하강의 이미지로 무기력함, 좌절감을 나타낸다. ④ ‘최초의 약수’는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화해하는 것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임을 보여 준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어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아침’은 긍정적 시어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시인의 삶을 고려할 때 광복을 의미한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당신이 [# **흠발**]로
짓밟아도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는 '나'

#2

[#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도
당신을 기다리며
날아 가는 '나'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24~27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화자인 '나'는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시어 '당신'이 '흠발'로 '나'를 밟고 가는 것은 '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표현 1연과 4연은 '~는 ~ / ~은 ~'과 같이 비슷한 어구가 짝을 이루고 있다.

02 ①

'나'는 사랑하는 '당신'이 떠났지만 '당신'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며 희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03 ④

이 시는 무심히 떠난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참된 사랑을 나타낸 시이므로, 시적 상황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⑤

이 시는 1연이 4연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수미상관법이 사용되었다. 수미상관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시의 화자를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시의 화자는 '나'로 겉으로 드러나 있다.

05 ④

'당신'은 ㉠과 ㉡을 통해 '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는 ㉢과 ㉣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③

'나'는 3연에서 '당신'이 오지 않으면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급한 여울' 역시 '당신'을 위한 '나'의 희생이므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신'을 안고 건너는 것이므로 기다리면서 겪는 고난이라고는 볼 수 없다.

07 ④

한용운은 민족 대표 33인 중의 한 명으로 삼일 운동 때 '독립 선언서'에 참여한 혐의로 일제에 체포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용운을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한용운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대상은 '조국(의 광복)'이라고 볼 수 있다.

08 ④

이 시는 '나'를 '나룻배'에 빗대어 사랑하는 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 '나'를 '당신'이 '행인'처럼 무심히 떠나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① '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당신'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없으며, '나' 역시 '당신'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③ '나'가 '당신'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⑤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정하게 대할 뿐이다.

05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오영진

메인북 28~33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송달지에게 이중생의 유산을

【# 보건 시설】

같은 것에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김 의원

#2

유산은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송달지에게

【#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김 의원

#3

재산을 빼앗기게 되자 사위인

【# 송달지】와

최 변호사에게 분노하는 이중생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보건 2 특위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송달지는 이중생의 첫째 딸인 하주의 남편이다.

사건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자 이중생은 최 변호사와 짜고 가짜 자살극을 벌여 재산을 사위인 송달지에게 맡겨 두려고 하였다.

배경 제시된 부분은 이중생의 집에 차려진 이중생의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재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사위인 송달지에게 물려준다고 유서를 썼지만, 나중에 다시 재산을 가져올 생각이다.

02 ④

최 변호사는 이중생의 고문 변호사로 이중생이 재산을 지키도록 거짓 자살극을 제안하는 인물이다. 이중생이 재산을 나라에 뺏기지 않아야 자신도 수수료를 받아 한몫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03

(1) 이중생, 최 변호사
(2) 송달지, 김 의원

이중생과 최 변호사는 재산을 나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중생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나타나 이중생의 재산은 여차피 나라의 것이며 이를 유익한 곳에 쓰자고 하고, 송달지는 이런 김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04 ④

이중생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김 의원에게 들킬 뻔한 부분이므로 극적 긴장감이 높아지다가, 최 변호사가 자기가 낸 소리라고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05 ④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다 무료 병원에 내놓아야 하느냐며 송달지와 최 변호사에게 분노를 터트리며 욕을 하고 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중생이 재산을 모두 잃게 되자 자신이 받을 수수료만 챙기는 등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06 ①

이중생이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아부하고 광복 후에는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부를 쌓은 것은 맞지만, 제목 자체에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07 ⑤

이중생이 살아 있다고 밝힐 수도 없는 최 변호사는 김 의원의 논리에 어안이 병병하여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다.

08 ③

보건 시설을 세우는 데 이중생의 재산을 쓰자는 김 의원에 말에 송달지가 긍정하자, 최 변호사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반대한다. 송달지는 이러한 최 변호사의 말에 반대는 커녕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있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
- (2) ㉡
- (3) ㉢

(1) '재촉하다'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는 것을 말한다.
 (2) '야속하다'는 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은 것을 말한다.
 (3) '몰수하다'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불법으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한다.

02 ㉤

'불충분하다'는 '만족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즉, 수가 모자라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머지 어휘들은 모두 크기가 크거나 수가 많거나, 성질이나 상태가 아주 좋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 탁월하다: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 우수하다: 여럿 가운데 뛰어나다. 특별히 뛰어나다. 다른 것에 비하여 수나 수량이 많다. ㉢ 뛰어나다: 남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앞서 있다. ㉣ 대단하다: 몹시 크거나 많다. 출중하게 뛰어나다.

03 ㉥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바쁘고 어지럽다.'라는 뜻이다. '한가하다'는 '겨울이 생겨 여유가 있다.'라는 뜻으로 '분주하다'와는 뜻이 반대되는 어휘이다.

04

- (1) 으레
- (2) 씌고

(1) '으레'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틀림없이 언제나.'를 뜻하는 어휘이다.
 (2) '씌다'는 '얼굴이나 몸에 바람이나 연기, 햇빛 따위를 직접 받다.'라는 뜻이다.

05

- (1) 줄
- (2) 알
- (3) 질

(1) '줄'은 글을 가로나 세로로 벌인 것을 세는 단위이다.
 (2) '알'은 작고 둥근 모양의 물건을 세는 단위이다.
 (3) '질'은 여러 권으로 된 책의 한 벌(세트)을 세는 단위이다.

06

- (1) 철부지
- (2) 험잡배

(1)과 (2)는 모두 「삼대」에서 사용된 어휘이다.
 (1)은 '철부지'로, 조의관이 조상훈을 나무랄 때 사용되었다.
 (2)는 '험잡배'로, 족보를 만들면서 조의관의 돈을 중간에서 꺾어 쓴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07 ㉦

창훈이는 상훈이를 변명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의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족보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인물이다. 이 상황은 족보 때문에 상훈이에게 화를 내는 조의관에게 창훈이가 변명을 해 주는 상황이다.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걸으려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밍다는 말이다.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뽑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는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 하여도 사람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여 이르는 말이다.

08 ㉧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뜻하므로, '당신'을 기다리는 '나'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 '고립무원'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 '혈혈단신'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을 뜻하는 말이다. '홀홀단신'은 틀린 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별
큰 큰



사건

01 **미스터 방** _ 채만식

02 **운수 좋은 날** _ 현진건

03 **봄·봄** _ 김유정

04 **유리창 I** _ 정지용

05 **고향** _ 백석

별별 사건 어휘로 마무리

#장면별 핵심 태그

#1

방삼복이 출세하여
‘[# 미스터 방]’이 된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백 주사

#2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 독립]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방삼복

#3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하는 [# 백 주사]

#4

미스터 방이 뺨은
[# 양치물]을 맞고
화가 나 미스터 방의 턱을
때린 S 소위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미스터 방 2 양치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방삼복은 광복 전에는 신기료장수를 하다가 광복 후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을 맡으며 미스터 방이 되었다.

사건 S 소위는 미스터 방이 뺨은 양치물을 얼굴에 맞고 화가 나서 미스터 방의 턱을 친다.

배경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1945년 광복 전후이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다.

소재 미스터 방의 이런 버릇 때문에 S 소위가 양치물을 맞게 된다.

02 ④

방 삼복은 역사의식이 없는 인물로, 독립이 되었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손님이 줄어든 것만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고 서야 독립도 할 만한 것이라고 느낀다.

03 #2

#2는 광복이 되던 날에 방삼복에게 있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다. #1, #3, #4는 독립 후 방삼복이 미스터 방이 되고 나서의 일이다.

04 ②

작가는 이 글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던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그 틈을 타 기회주의자나 아부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05 ⑤

백 주사는 속으로 미스터 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미스터 방이 출세를 하여 큰 세도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자 미스터 방의 힘을 빌려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한다.

06 ①

미스터 방은 백 주사가 자신에게 복수를 부탁하자, 자신의 말 한마디면 기관총을 둘러멘 엠피가 백 명이고 천 명이고 움직인다고 자신의 권력을 과장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07 ②

‘순사’는 일제 강점기 때의 경찰관이다. ‘순사’와 ‘독립’이라는 말을 통해 이 글이 일제 강점기와 광복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④

이 글의 결말은 미스터 방이 술을 먹으면서 양치를 하는 버릇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미스터 방의 모습을 풍자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앞으로 미스터 방의 처지가 뒤바뀌어 권력과 부를 잃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며 상황이 반전되어 독자에게 쾌감을 준다.

메인북 38~43쪽까지 정답이야!



02

운수 좋은 날

현진건

메인북 44~49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오랜만에 손님을 연달아 태우고 **【#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김 첩지

#2

손님이 끊이지 않자, 계속되는 **【# 행운】**에 겁이 난 김 첩지

#3

【#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통곡하는 김 첩지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비 2 설령탕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 인물** 김 첩지는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한다고 하였다.
- 사건** 김 첩지는 아침부터 앞집 마나님을 전차길로 모셔다 드리고,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등 운수가 좋은 날이었다.
- 배경**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는 배경은 이 글의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소재** 오랜만에 돈을 번 김 첩지가 '설령탕'을 사 가지고 집에 가지만,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02 ⑤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는 작품 전반에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김 첩지가 아픈 아내에게 화를 내기는 하지만 이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날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과 불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3 ④

【#2】에서 김 첩지는 병에게 약을 주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형편이므로, 김 첩지가 아내에게 약을 지어 먹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①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하는 말로 특정한 시대나 사회를 나타내는 어휘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말이다.

05 설령탕

김 첩지는 돈을 벌자 아내에게 설령탕을 사 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술에 취했음에도 잊지 않고 설령탕을 사 온 것으로 보아 설령탕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내는 결국 이 설령탕을 먹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설령탕은 아내의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다.

06 ③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실주의 소설이다. 하층민에 속하는 김 첩지가 사용하는 비속어는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07 ②

㉠와 ㉡는 김 첩지 아내가 살아 있을 때 내던 소리이고, ㉢는 김 첩지 아들이 젖을 빠는 소리이므로 김 첩지 아내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08 ①

이 날은 김 첩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가 좋은 날이 될 수 있었으나, 결국 아내가 죽은 불행한 날이 되었다. 제목인 '운수 좋은 날'은 이러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나타내고, 글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장인에 대한 불만으로
【# 배】가 아프다고
피병을 부리는 ‘나’

#2

마을에서 ‘【# 욕필이】’
라고 불리며 인심을 잃은 장인

#3

장인이 계속해서
【# 성례】를 미루자
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고
하는 ‘나’

#4

【# 봄】이 되자
가슴이 울렁거리는 ‘나’와
이런 ‘나’를 부추기는 점순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키 2 성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하고 싶어 하고, 점순이도 ‘나’에게 성례를 재촉할 것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아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건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면 ‘나’와의 성례를 계속 미루고 있다.

배경 이 글의 배경은 산골의 농촌 마을이다. 사투리와 농촌의 소재들에서 향토적 정감이 느껴진다.

소재 ‘나’는 점순이가 제일 맛 좋고 이쁜 ‘감참외’ 같이라며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02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로, 사투리와 언어유희를 사용해 친근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2에서 인물(장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03 ④

두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는 성례를 핑계로 ‘나’를 마음껏 부리고 싶은 장인의 마음과, 점순이와 얼른 성례를 올리고 싶은 ‘나’의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04

ㄱ ⇒ ㄹ ⇒ ㄴ ⇒ ㄷ

작년 이맘 때(봄), 장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나’에게 장인이 돌맹이를 던져 ‘나’가 발목을 빼었다(ㄱ). → 그 전날(그저께), 점순이가 성례와 관련하여 ‘나’를 부추겼다(ㄹ). → 어저께 ‘나’는 장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며 피병을 부렸다(ㄴ). → 어저께 ㄴ이 일어난 후,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문제 삼아 성례를 미루자 ‘나’가 구장에게 판단을 받으러 가자고 제안하였다(ㄷ).

05 ②

#2를 보면, 장인은 동네에서 인심을 잃을 정도로 인색하고 덕이 없지만, 마름이라는 지위 때문에 재물도 얻었으며, 동네 사람들이 장인에게 굽실굽실하기까지 한다.

06 ①

‘나’가 피병을 부리는 것은 성례를 미루는 장인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게으른 성격은 아니다.

07 ⑤

점순이의 몸이 빨리빨리 노는 것은 ‘나’가 점순이의 단점으로 꼽은 것으로, ‘나’가 점순이의 몸이 빨리빨리 노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⑤

제목인 ‘봄·봄’에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나’와 점순이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랑의 계절이다.

매인북 50~55쪽까지 정답이야!



04 유리창 1 정지용

장면별 핵심 태그

#1

입김과 밤하늘의

[# **별**]에서 죽은
아이를 떠올림

#2

[# **유리**]를 닦으며
느끼는 심정과 죽은 아이에
대한 탄식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56~59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이다.

시어 창 너머를 보여 주지만 두 공간 사이를 막는 ‘유리창’은 창 안(이승)과 창밖(저승)을 이어 주면서 동시에 단절한다.

표현 이 시는 대비되는 감정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02 ①

‘유리창’ 안은 화자가 있는 삶의 공간, 밖은 아이가 떠나간 죽음의 공간이다. 화자가 유리창에 어리는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볼 수는 있지만, 화자가 아이에게 닿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리창은 둘을 단절하면서도 매개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죽은 아이이지, 유리창 자체는 아니다.

03 ④

이 시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고 있다.

04 ③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산새’ 등으로 죽은 아이의 영상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5 외로운 황홀한 심
사이어니

‘외로운’은 자식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황홀한’은 자식을 떠올리는 황홀함을 나타낸 표현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나타낸 모순 형용사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화자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 ③

㉠ ‘너’는 죽은 아이를 가리키는 시어로,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산새’는 모두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새까만 밤’은 죽은 아이가 있는 공간, 즉 저승을 표현하고 있다.

07 ③

㉡은 유리를 닦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08 ③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떠나갔다. 이 시에서 유리창의 안쪽과 **보기**에서 ‘여기’, 즉 ‘열매가 떨어지면 /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은 모두 화자가 있는 이승이다.

• 보기 ㉡ 돌보기 •

박목월, 「하관」

아우의 관을 내리는 장면과 꿈에서 아우를 만난 장면을 통해 아우를 잃은 슬픔 및 삶과 죽음의 단절을 표현한 시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나’에게 [# **고향**]을 묻는 의원

#2

의원의 [# **손길**]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나’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60~63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화자와 아무개 씨의 고향은 평안도 정주로 같은 곳이다.

시어 화자는 ‘북관’이라는 타향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표현 이 시는 타향에서 홀로 아픈 ‘나’가 의원을 만나 진찰을 받으며 대화하는 서사적 구조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02 ③

‘나’는 타지에서 혼자 앓아누워 있으며 ‘나’가 아버지로 모시는 분과 막역지간인 의원을 만난 상황이다. ‘나’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이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03 ⑤

화자는 타지인 함경도에 혼자 있는데 아프기까지 하다. 외로움을 느끼던 화자는 자신을 진찰하는 의원이 고향에서 아버지로 섬기던 이와 가까운 사이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의원의 손길이 마치 가족과 고향 사람처럼 따스하게 느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받게 된다.

04 ①

화자는 의원의 부처 같은 얼굴에 관우의 수염을 드리운 모습을 동화 속 존재인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먼 옛적 어느 나라’라는 표현을 통해 동화적 느낌을 주고 있다.

05 ⑤

‘나’는 의원에게서 처음부터 신선 같은 인상을 느끼고 있으며, 고향과 지인에 관한 대화를 통해 더욱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06 ⑤

㉠은 아버지로 섬기는 이와 친구 사이인 의원을 우연히 만나 고향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정을 느꼈다는 의미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07 ③

의원은 앓아누운 ‘나’를 진료하기 위해 ‘나’가 처음 만난 인물이다. 대화를 통해 의원은 ‘나’가 자신의 친구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08 ③

이 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화자가 아버지로 섬기는 분과 친한 사이인 의원을 만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이나 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칸
- (2) 첩
- (3) 되, 단

(1) '칸'은 건물에서 둘러막혀 생긴 공간을 세는 단위이다.
 (2) '첩'은 약봉지에 싼 약의 뭉치를 세는 단위이다.
 (3) '되'는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쓴다. '단'은 짚, 땔나무, 채소의 묶음을 세는 단위이다.

02 ㉓

'나른하다'는 '맥이 풀리거나 고단하여 기운이 없다.'라는 뜻으로 '지치다, 늘어지다, 노곤하다, 고단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㉓ '거뜰하고'는 '마음이 후련하고 상쾌하고.'라는 뜻으로 '나른하고'와는 반대 뜻을 가진 어휘이다.
 ① '지치고'는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지고.', ② '늘어지고'는 '기운이 풀려 몸을 가누지 못하고.', ④ '노곤하고'는 '나른하고 피로하고.', ⑤ '고단하고'는 '몹시 지쳐서 몹시 기운이 없고.'의 뜻이다.

03

- (1) ㉠
- (2) ㉡
- (3) ㉢

(1) ㉠ '추적추적'은 '비나 진눈깨비가 자꾸 축축하게 내리는 모양.'을 뜻한다.
 (2) ㉡ '스르르'는 '미끄러지듯 슬며시 움직이는 모양.'을 뜻한다.
 (3) ㉢ '허둥지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갈팡질팡하며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뜻한다.

04

- (1) 띠고
- (2) 털썩
- (3) 웬일인지

(1) 감정이나 기운, 생각을 나타낸다는 의미일 때에는 '띠다'를 써야 한다. '띠고'는 '뜨이고' 혹은 '띄우고'의 준말로 맞춤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여기서는 문맥상 맞지 않는다.
 (2) '털썩'은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현이다.
 (3) '웬일인지'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웬'을 쓰는 말은 '왜인지'의 준말인 '웬지'밖에 없다.

05 ㉠

㉠~㉣은 모두 '폼'이라는 어휘의 뜻이다. 그런데 각각의 '폼'은 소리만 같고 뜻이 다른 어휘(동음이의어)이다. 여기서는 남이 이틀 동안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루만에 했다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어떤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의 뜻이 적절하다.

06

- (1) 피신
- (2) 궁리
- (3) 습격

(1) '피신'은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김.'을 뜻한다.
 (2) '궁리'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을 뜻한다.
 (3) '습격'은 '갑자기 상대방을 덮쳐 침.'을 뜻한다.

07 ㉠

'나'가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성례를 할 수 있다는 두루뭉술한 약속을 한 것에서 '나'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박하고 어수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숙맥 불변(菽麥不辨)'은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을 이르는 말이다.
 ㉡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 낭중지추(囊中之錘):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08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라는 속담은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장끼'는 꿩 수컷을, '까투리'는 꿩 암컷을 가리킨다. ㉡ '노가리'는 멧돼지의 새끼를 가리킨다.



별별
큰 큰

배경

01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02 만세전 _ 염상섭

03 태평천하 _ 채만식

04 님의 침묵 _ 한용운

05 청포도 _ 이육사

별별 배경 어휘로 마무리

어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메인북 68~73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 달밤】에 만났던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허 생원

#2

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 발을 헛디더
【# 개울】에 빠지는 허 생원

#3

【# 왼손잡이】인 동이를 보고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허 생원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메밀꽃 2 아들

01

- 인물 ○
- 사건 ○
- 배경 ○
- 소재 ○

인물 동이는 의부 밑에서 맞으며 살다가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쳐 나왔다고 하였다.

사건 허 생원은 동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성 서방네 처녀와 닮아 있음을 깨닫고 놀라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개울에 빠진다.

배경 이 글은 세 사람이 걷고 있는 달밤의 산길을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재 '나귀'는 허 생원과 함께 떠돌아다닌 동반자로, 허 생원의 삶을 그대로 보여 주는 동물이다.

02 ④

허 생원은 대화장을 보고는 제천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조 선달의 반응으로 보아 이는 원래 계획된 일이 아니라, 허 생원이 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3 ④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났을 때도 달밤이었고, 현재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 역시 달밤이다. 이처럼 '달밤'이라는 배경은 인물들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를 아름답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04 ⑤

허 생원이 동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개울에 빠지게 되어 두 사람은 조 선달보다 한참 뒤처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허 생원이 동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05 왼손잡이

허 생원은 동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동이 어머니가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성 서방네 처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말에서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임을 발견하고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06 ①

허 생원은 자신의 나귀가 피마에게서 새끼를 얻었듯, 자기 자신도 성 서방네 처녀와의 사이에서 동이라는 아들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보여 주고 있다.

07 ⑤

처음에 좁은 산길에서 동이는 허 생원과 떨어져 걸었기 때문에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이는 허 생원과 동이가 서로의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여 결말 부분에서 극적인 효과를 낸다.

08 ③

달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달이 저물고 곧 날이 밝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세 사람이 밤새 길을 걸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앞으로의 고난이나 역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조선 사람을 [# **요보**]
라 부르며 무시하는 일본인의
말에 적개심과 반항심이
생기는 '나'

#2

배 안 [#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엿듣는
'나'

#3

조선 [# **노동자**]들이
속아서 일본 공장에 팔려
가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나'

#4

정거장에서 조선의 현실을
보고 분노하며 조선을
[# **무덤**]이라고
속으로 외치는 '나'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목욕탕 2 무덤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가 망국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사건 '나'는 목욕탕에서 일본인끼리 하는 대화를 엿듣고 있다.

배경 '나'는 일본 동경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소재 '나'는 일본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목
격하고는 '무덤' 같다고 여기고 있다.

02 ③

'나'는 동경에서 서울로 가는 배 안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분노하고 있을 뿐, 이 글을 통하여 '나'가 일제에 복수하려
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03 ①

'나'는 자신을 소위 말하는 '우국지사(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선인을 업신
여기고 깔보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니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04 ④

'노동자'는 지금도 사용되는 말이므로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는 말
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순사'는 일제 강점기의 경찰을 가리키던 말이다. ② '요보'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고, ③ '생똥'은 일본인이 대
만의 번족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⑤ '쿠리'는 일본인이 육체노동
을 하던 중국인 노동자나 인도인 노동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05 ④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속아 일본의 공장에 팔려 갔음을 알 수 있
으나 조선인에게 속아 일본으로 팔려 갔는지는 알 수 없다.

06 ①

'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에게 속아 지옥과도 같은 공장으
로 팔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그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러한 '나'의 분노는 '얼굴'을
'상판대기'라고 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07 무덤

'나'는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구더기(조선인)가 꿩의 무덤(조
선 사회)'이라고 외치고 있다.


08 ②

이 글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한 통치와 억압, 조선의 노동력
을 착취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일본의 침략을 아
름답게 꾸미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더욱 사실적이고 객관적
으로 그려 내고 있다.

매인북 74~79쪽까지 정답이야!



03 태평천하 채만식

메인북 80~85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윤 직원 영감이 윤종수에게
【# **군수**】가 되어야
한다며 훈계함

#2
윤종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 **전보**】를 받고
놀라는 윤 직원 영감

#3
태평천하에 【#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며
윤종학에게 분노하는
윤 직원 영감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전보 2 태평천하

- 01 **인물** ×
- 사건** ○
- 배경** ○
- 소재** ○

인물 윤 직원 영감의 아들은 윤 주사(윤창식)이고, 윤종수와 윤종학은 손자이다.

사건 윤 직원 영감의 아버지 말대가리 윤용규는 구한말 화적패의 손에 맞아 죽었다.

배경 윤 직원 영감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시기를 태평하고 살기 좋은 시기라고 여기고 있다.

소재 윤 주사가 '전보'를 받고 윤 직원 영감에게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잡혀간 사실을 알린다.

02 ⑤

이 글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① '망진자는 호야나라'라는 소재목으로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② '-깟다요'와 같은 판소리적 문체와 '-비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③ 윤 직원 영감과 윤 주사의 지체를 바꾸면 꼭 맞깟다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④ '파리 족통' 같은 비속어나, '웅장한 투쟁' 같은 반어법을 사용하여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을 조롱하고 있다.

03 ④

'전보'의 내용으로 보면 윤종학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있는 경시청에 잡혀갔으므로 서울로 돌아오기 힘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4 ④

제시된 부분은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진나라를 망하게 했듯이, 윤 직원 영감의 손자인 윤종학이 윤 직원 영감의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05 ⑤

윤 직원 영감은 구한말에 화적패의 습격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재산을 잃었는데, 사회주의가 그런 화적패(불한당패)라고 하며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갈 세력으로 여겨 반감을 가지고 있다.

06 ⑤

윤 직원 영감은 손자 윤종학이 착실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자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있다.

07 ②

윤 직원 영감은 구한말 화적의 손에 아버지가 죽자 자신만 빼고 모두 망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나라는 일제에 의해 망하고 윤 직원 영감은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뜻밖의 [# 이별]에
놀라고 슬픔에 터진 가슴

#2

임을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과 임을 향한
[# 사랑]의 노래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86~89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한 상황이며, 임과의 재회를 믿고 있을 뿐 임을 다시 만나지는 않았다.

시어 화자가 임과 했던 '황금의 꽃' 같은 '옛 맹세'가 '차디찬 티끌'처럼 보잘것없어졌음을 뜻하므로, 둘은 서로 대조된다.

표현 '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시행이다.

02 ③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임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슬픔을 딛고 임과 다시 만나리라고 희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03 ③

1~6행까지 사랑하는 임이 떠난 상황과 그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다가 7행의 첫 부분인 '그러나'에서 시상이 전환된다. 그리하여 7행부터는 임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

04 ②

이 작품에서 '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용운이 독립운동가이고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님'은 '빼앗긴 조국'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5 ④

㉠에서 화자는 임을 보내고 슬퍼하고 있지만 임과 헤어진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은 '아아'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가 티끌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사랑의 약속이 소용없어진 것이다. ㉣은 임 외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에서 '님의 침묵', 즉 임의 부재에도 화자의 사랑 노래가 그것을 휩싸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06 ②

임과 이별하였지만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 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ㄱ). 하지만 그 속에는 임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다(ㄴ).

ㄴ.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반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ㄷ. 화자는 임은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07 ④

이 시의 8행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는 만남이 이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별도 만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05 청포도

이육사

메인북 90~93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 청포도】가 익어 가는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

#2

흰 돛단배를 타고
【#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

#3

손님을 맞아 함께
【# 포도】를 따 먹기
위한 준비

문제 정답 및 해설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화자는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준비하며 청포를 입고 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시어 ‘하늘’은 우리러보는 대상으로서 ‘이상’을 상징하며, 화자의 소망이나 꿈을 나타낸다.

표현 이 시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가 나타난다.

02 ⑤

‘청포도’는 푸른색과 풍성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희망,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3 ④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등의 푸른색과 ‘흰 돛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 등의 흰색을 대비하여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①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기다리는 ‘손님’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①

‘손님’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다. 이 시가 창작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는 점과 이육사가 독립운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손님’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6 ④

㉠은 사람이 아닌 하늘이 사람처럼 꿈을 꾸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다. ㉡은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연다고 표현하여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은 반복법, ㉣는 비유법, ㉤은 반어법, ㉥는 설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07 ⑤

보기는 흰색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 흰색의 이미지를 사용한 시어는 ‘흰 돛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으로 화자의 순수하고 고결한 기다림의 모습을 강조한다.

08 ③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마을 전설’은 일제 강점기 이전의 평화롭던 우리 민족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 ㉠
- (2) ✕ ㉡
- (3) ✕ ㉢

㉠ ‘피다’는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라는 뜻으로 앞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나온다. ㉡ ‘지르다’는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라는 뜻으로 앞에 ‘소리’와 관련된 말이 나온다. ㉢ ‘빋디디다’는 ‘잘못하여 디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디디다.’라는 뜻으로 앞에 ‘발’이 나온다.

02 ㉣

‘정수리’는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① 이마: 눈썹 위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 부분. ② 팔꿈치: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쪽. ③ 옆구리: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 ⑤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03 ㉡

‘어지간하다’는 ‘수준이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어휘는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낫다.’라는 뜻의 ㉡ ‘웬만하다’이다.
 ㉠ ‘시원찮다’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 ‘어쭙잖다’는 ‘아주 서투르고 어설피다. 또는 아주 시시하고 보잘 것없다.’라는 뜻이다.

04 (1) 우국지사
(2) 망나니
(3) 불한당

(1)은 「만세전」에서 ‘나’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한 말이다.
 (2)는 「메밀꽃 필 무렵」에서 동이가 의부를 가리켜 사용한 말이다.
 (3)은 「태평천하」에서 윤 직원 영감이 사회주의자들에게 한 말이다.

05 (1) ㉢
(2) ㉠

(1) ㉠ ‘열기설기’는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을, ㉡ ‘듬성듬성’은 ‘매우 드물고 성긴 모양.’을 의미한다.
 (2) ㉢ ‘사뿐히’는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시원하게.’, ㉣ ‘주렁주렁’은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의미한다.

06 (1) 여원
(2) 가없어

(1) ‘여위다’는 ‘몸의 살이 빠져 파리하게 되다.’라는 뜻이고, ‘여의다’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라는 뜻이므로, (1)은 ‘여원’이 적절하다.
 (2) ‘가없다’는 ‘마음이 아플 만큼 안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이고, ‘가없다’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므로, (2)는 ‘가없어’가 적절하다.

07 ㉢

조 선달은 허 생원과 다니면서 허 생원의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들어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허 생원은 모른 척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조 선달에게 또 하고 있다. (2)의 ‘시치미 떼다’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시치미’는 원래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끈지 속에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시치미를 떼어 자기가 잡은 매라고 우기거나, 아예 자기 시치미로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한다는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지다.’는 ‘이야기가 다르다’의 뜻이다. ㉡ ‘같은 말을 너무나 여러 번 듣다.’는 ‘귀에 못이 박히다’의 뜻이다.

08 ㉡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윤 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손자 윤종학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배신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 ‘가재는 게 편’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꼭 참고 견디는 것이 상책임을 이르는 말이다.

별별
글 글



소재

01 동백꽃 _ 김유정

02 돌다리 _ 이태준

03 역마 _ 김동리

04 진달래꽃 _ 김소월

05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_ 김영랑

별별 소재 어휘로 마무리

메인북 98~103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점순이가 '나'에게 준
【# 감자】를
'나'가 거절하자 얼굴이
빨개져 달아난 점순

#2

【# 닭싸움】을 붙여 놓고
천연스레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이에게 약이 오르는 '나'

#3

화가 나서 단매로
점순이네 【# 수탉】을
때려죽이는 '나'

#4

점순이에게 떠밀려
점순이와 함께
【# 동백꽃】속으로
쓰러지는 '나'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감자 2 동백꽃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와 점순이는 사춘기를 맞은 나이의 소년과 소녀이다.

사건 '나'는 점순이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집 수탉에게 고추장 물을 먹였다.

배경 산골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시골의 정취를 자아낸다.

소재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자기네 닭을 '나'의 수탉과 싸움을 붙인 것이다.

02 ①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한 이유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소작인의 아들인 자신을 점순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해 감자를 거절한다.

03 ①

'나'에게 맛있는 봄 감자를 몰래 주는 것이나,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나'에 대한 원망으로 수탉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⑤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거나, '나'의 닭과 닭싸움을 붙이는 등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나'는 이런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모습을 보인다.

05 ③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었다가 거절당한 일이 상처로 남아 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부끄럽고 화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담부터 안 그럴 터냐?”라는 말은 앞으로는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06 ②

점순이는 마름(땅 주인 대신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딸이라 집이 넉넉하고, '나'는 그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동백꽃'이 두 사람의 형편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재로 쓰이지는 않았다.

07 ③

'나'의 수탉은 점순이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거나 쪼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았다. 죽은 것은 '나'의 매에 맞은 점순이네 닭이다.

08 ⑤

'나'는 바보스럽기도 하고 순박하기도 한 농촌 소년으로, 점순이가 '나'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한다. 이는 독자가 따뜻하고 동정이 섞인 웃음을 짓게 만든다.

메인북 104~109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이와 이를 거절하는 아버지

#2

【#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아버지

#3

【#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창섭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병원 2 땅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창섭이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맹장 수술 전문의이다.
사건 이 글은 창섭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을 주로 다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배경 창섭이는 직접 고향을 찾아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
소재 돌다리는 전통 세대인 아버지의 가치관을, 나무다리는 근대 세대인 창섭이의 가치관을 상징한다.

02 ⑤

창섭이는 서울의 병원이 잘되어 더 큰 건물로 옮기려고 한다. 창섭이는 시골의 땅을 팔아서 새 건물을 살 계획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고향에 온 것이다.

03 ①

창섭이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시골의 땅을 팔자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국 이를 거절한다.

04 ③

#1에서 창섭이는 자신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를 대며 '땅'을 팔아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

05 ⑤

#2에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땅을 선조와 자신의 추억과 노력이 서려 있는 곳이자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땅은 반드시 보답을 한다고 생각한다.

06 ⑤

창섭이는 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애착과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런 아버지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땅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는 못한다. 창섭이는 자신이 아버지와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결별의 심사를 느낀다.

07 ㉠: 나무다리

㉡: 돌다리

옛날에 만들어져 오랜 세월을 함께한 ㉠ '돌다리'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창섭이의 근대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소재는 ㉡ '나무다리'이다.

08 ④

창섭이는 아버지와 달리 고향의 땅에 토포필리아를 느끼지 않는다. 땅을 팔아 병원을 옮길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과, 땅은 언제든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보기 돋보기 •

보기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가리키는 '토포필리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로 토포필리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향 땅'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체 장수 영감과 고향으로
떠나는 계연이를 붙잡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 **성기**】

#2

성기에게 검정
【# **사마귀**】를 보여 주며
계연이와 자신의 관계를
밝히는 옥화

#3

【# **화갯골**】, 하동,
구례로 난 세 갈래 길에서
하동 쪽을 향해 길을
떠나는 성기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체 장수 2 하동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옥화는 어머니를 이어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하고 있다.

사건 성기와 계연이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지만 이별하고 만다.

배경 화개 장터에서는 체 장수 영감, 계연이, 성기 등 등장인물 간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

소재 결말에서 성기는 옛장수가 되어 화갯골을 떠나므로, ‘옛판’은 성기가 운명에 따라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02 ③

계연이는 성기에게 하직 인사를 세 번이나 반복한다. 이는 겉으로는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성기가 자신을 잡아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03 ②

성기는 역마살(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을 가진 인물이다. A는 어머니 옥화의 바람대로 정착하여 사는 삶이고, B는 계연이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계연이와 결혼하면 정착하여 사는 삶이므로 A와 B는 운명을 거스르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는 방랑하며 사는 삶이므로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04 ④

체 장수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에 화개 장터에 왔을 때 옥화가 생겼으나 체 장수 영감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 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체 장수 영감이 계연이와 화개 장터에 온 것은 장날에 체를 팔기 위해서이다.

05 ④

이 글에는 ‘역마살’이라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순응하게 되는 인간(성기)의 갈등이 나타난다.

06 꽃주머니

옥화는 성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계연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계연이가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있다. 이복동생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떠나보내야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옥화는 돈이 든 꽃주머니를 계연이의 보파리에 징표로 넣어 주고 있다.


07 ②

성기는 계연이를 보내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앓았으나, 옥화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결국 운명에 따라 떠돌이의 삶을 시작하였다.

메인북 110~115쪽까지 정답이야!



04 진달래꽃 김소월

메인북 116~119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임이 떠난다면 가시는
길에 [# 진달래꽃]을
뿌리겠다는 화자

#2

임이 떠나도 결코
[#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화자

문제 정답 및 해설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이 시의 화자는 ‘나’로, 혼자 말하고 있다.

시어 ‘진달래꽃’은 이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표현 화자는 임이 떠나면 무척 슬퍼할 것이면서, 겉으로는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02 ③

이 시는 붉고 선명한 진달래꽃의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진달래꽃과 대조되는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03 ⑤

화자는 임과의 이별 상황을 가정하며 임과 이별하게 되더라도 임이 떠나는 길을 축복하고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04 ④

화자는 임과의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 ‘진달래꽃’이 임과 화자가 맞이할 긍정적인 앞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05 ①

‘애이불비(哀而不悲)’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별의 아픔을 참고 견디는 화자의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다.

② ‘산화공덕’은 ‘부처에게 꽃을 뿌리며 공덕을 기림.’, ③ ‘안하무인’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④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 ⑤ ‘유아독존’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뽐냄.’이라는 뜻이다.

06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겉에 드러난 내용이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된 것 즉, 반어적 표현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이다.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들며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이 보내 드리겠다며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07 1연: 체념
2연: 축복
3연: 희생
4연: 극복

화자는 만약 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더라도 변함없이 임을 사랑하겠다는 자기희생과 인내의 자세를 보여 준다. 이처럼 ‘체념 → 축복 → 희생 → 극복’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는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08 ①

떠나는 임을 축복하고 슬픔을 인내하는 이 시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자신을 떠난 임은 병이 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둘 다 이별할 때의 정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봄 [#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마음

#2

[# 실비단] 같은
봄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20~123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1연의 '내 마음'으로 보아 화자는 겉으로 드러난 '나'이다.
시어 '돌담', '샘물', '물결' 등의 시어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뜻을 가졌고, 울림소리가 많이 쓰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표현 하늘을 동경하고 희망하는 화자의 소망이 1연과 2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02 ②

이 시의 1연과 2연은 모두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루', 즉 현재 화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3 돌담에 V속삭이는 V햇발같이
풀 아래 V웃음 짓는 V샘물같이

이 시는 **보기**의 「연분홍」과 같이 시행을 세 개의 단위로 끊어 읽는 3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

• 보기 •

보기의 「연분홍」은 7자와 5자의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7·5조의 운율과 각 행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는 3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

04 ②

「진달래꽃」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7) / 가실 때에는(5)'이나 「연분홍」에서 '봄바람 하늘하늘(7)넘노는 길에(5)'는 7글자와 5글자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7글자와 5글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5 ③

제시된 시행에는 촉각적 심상(보드레한)과 시각적 심상(에메랄드얇게 흐르는)이 나타난다. ③의 '서늘런'은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듯한.'이라는 뜻으로,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①은 미각, ②와 ④는 청각, ⑤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06 ④

'동경하다'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한다.'이다. 이 시의 화자는 평화롭고 순수한 이상적 세계인 하늘을 동경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

07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1연의 1행과 2행에서는 사람이 아닌 햇살이 사람처럼 속삭인다고 하거나, 자연물인 샘물이 사람처럼 웃음을 짓는다고 하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08 ⑤

'에메랄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비유하고 있는 시어이다.

09 ③

'시의 가슴'은 곱고 순수한 마음, 밝고 아름다운 마음, 시적 정서가 가득한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
- (2) ~~㉡~~
- (3) ~~㉢~~

(1) 얽하다: 값이 싸다. ⇔ ㉢ 비싸다: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높다.
 (2) 꺼지다: 물체의 바닥 따위가 내려앉아 빠지다. ⇔ ㉠ 솟다: 바닥에서 위로 나온 상태가 되다.
 (3) 이르다: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 ㉡ 늦다: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02 ㉢

밀줄 친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의 '길'은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를 가리킨다.

03 ㉢

'피땀'은 '피와 땀.'을 이르기에도 하지만, 제시된 글에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04

- (1) 넘어
- (2) 지그시
- (3) 반듯이

(1) '너머'는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 '넘어'는 '일정한 시간에서 벗어나 지난.'이라는 뜻이다.
 (2)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듣지 않게. 참을성 있게 끈지게.', '지그시'는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을 뜻한다.
 (3)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이고,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다.

05

- (1) ㉠
- (2) ㉡

(1) ㉡ '물랑거리'는 '매우 또는 여기저기가 야들야들하게 보드랍고 조금 무른 듯한 느낌이 드는.', ㉢ '두들두들'은 '물체의 겉에 불룩한 것들이 솟아 나오거나 붙어 있어 고르지 아니한.'이라는 뜻이다.
 (2) ㉠ '말끔히'는 '티 없이 맑고 환할 정도로 깨끗하게.', ㉡ '당당히'는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로.'라는 뜻이다.

06 ㉢

'바람'은 '바람에'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다.
 ㉠ '지경'은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상태'는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을 말한다. ㉢ '덕분'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뜻한다. ㉣ '형편'은 '일이 되어 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를 뜻한다.

07 ㉢

'나'는 점순이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우리 집 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닭에게 고추장 물을 먹이고 있다. 하지만 수탉에게 고추장 물을 먹인다고 해서 닭이 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고추장 물을 먹은 닭은 힘이 세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절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나'에게 해 줄 말로는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을 뜻하는 '무지몽매(無知蒙昧)'가 적절하다.
 ㉠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을 뜻하는 말이다. ㉡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이라는 뜻이다.

08 ㉡

아버지는 땅에 꾸준히 관심을 두어 가꾸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 화학 비료를 넣는 것은 땅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은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언 발에 오줌 누기'와 의미가 통한다.
 ㉠ '가는 날이 장날'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